

축가

# 새로 난 한 형제

297

박창득 작사  
현종건 작곡

부드럽게

1. 하느님이 름 으로  
2. 주님상 둘레에 모  
3. 주성령내려오시로  
4. 예수님몸소기

새로난우리심  
성체를모시고  
우리를비추고  
랑의성모여

들으시고  
시시여  
시시여  
시시여

서로서로 사랑하 는 주님의 형제들  
예수그리스도 머리로 서는 된 몸우리  
믿음희망 주주시 오며 한사랑케 하  
우리들도 당신 품에 자라게 하

우리들은 한-가족 모두 한 형제 라

약간 느리게, 경건하게

우리는 한 마음 주예수 안에